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 2020 요약본(원문 1~11쪽 요약)
(World Population Ageing 2020 Highlights)

요약번역: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조산새 연구원

sscho@asemgac.org

[서론 Introduction]

세계는 늘어난 기대수명과 출생률의 저하로 계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및 노인인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수는 7억2천7백만명이며 향후 30년간 노인인구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에는 15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2020년과 2050년 사이 노인인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3퍼센트이나, 2050년이 되면 16퍼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발생한다. 출생률의 감소, 결혼 형태의 변화, 동거, 이혼 및 청년 세대의 높아진 교육수준, 도시이주, 국제이주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려 일어나는 급격한 경제 발전 등은 노인들의 삶의 형태와 주거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서유럽과 미국의 경우, 세대 간 공동생활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노인들은 보통 1인가구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가구, 혹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2~3대가 함께 사는 가족 주거형태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들의 주거 형태와 환경은 노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들의 주거 형태는 이들의 경제적 웰빙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및 삶의 만족과 연관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주거 형태는 사망률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인가구 노인 또는 시설거주 노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평균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의 주거 형태는 주거시설, 사회서비스, 에너지, 물 등 자원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국가에서는 노인의 주거 형태와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 되고 있다. 노인의 주거환경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웰빙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모든 연령과 모든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노인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에 대한 문제는 특히 1번 목표(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3번 목표(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5번 목표(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유엔의 데이터베이스 “2019 노인의 주거 형태 및 가구조사(the Household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2019)”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국가를 포괄하여 노인의 주거 형태와 가구 규모 및 구성의 시간적 흐름과 유형을 종단조사한 유일한 통계자료로서, [박스 1]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통계 자료의 개요를 담고 있다.

[박스 1] 노인의 주거 형태에 관한 통계 자료

2019 노인의 주거 형태 및 가구조사에 관한 유엔 데이터베이스(the United Nations Database on the Household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2019)는 60세 이상 인구의 주거 형태와 가구 구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국제적 차원에서 통합한 것으로, 1차 데이터 출처(data source)는 인구조사와 가구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했으며, 최종 데이터베이스는 1960년부터 2018년에 걸쳐, 총 155개 국가 혹은 지역의 데이터를 포괄하여 전 세계의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97퍼센트 이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최대한 최근 자료와 동향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3개국(전 세계 노인인구 약 70퍼센트 거주)의 데이터베이스만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9월말 기준, 전 세계에서 약 3천3백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약 1백만명 정도가 사망했다.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비노인 세대에 비해 노인 세대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하며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사망률의 국가별 큰 차이점과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 19에 대한 노인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각국의 바이러스 확산 완화와 통제의 정도에 달려 있다. 개인의 취약성 또한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암, 비만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와 고령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 또한 코로나19 사망률과 연령 간 보이는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의 주거 형태 현황을 알아보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련된 맥락에서 노인의 주거환경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의 주거 형태]

대부분의 노인의 경우, 건강과 신체기능의 저하, 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주거비와 위치 등의 사유로 자신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와 실제 주거 형태는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문화적 관습과 규범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유럽 내에서도 좀 더 개인주의적 사회인 북유럽과 서유럽에서는 노인들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주의 사회인 남유럽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금, 건강보험, 주거지원정책, 돌봄지원정책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노인들의 주거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발전은 1인가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주거형태와 긍정적 상관성을 가지지만,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사는 등 대가족으로 구성된 노인의 주거형태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선진국의 경우, 결혼의 시기가 늦고 자녀의 수 또한 적은 경우가 많으며 별거,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점은 여성의 노후의 주거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의 주거 형태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가족과 함께 사는 공동 주거 형태에서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독립 주거 형태로 변화해왔다. 물론, 이는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동유럽에서 부동산 위기가 사회를 휩쓴 당시, 이미 독립한 성인 자녀들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다시 부모와 함께 살면서 2,3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가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 2008년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 형태가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사회 및 경제 위기가 약물 및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부모의 교도소 수감, 아동 학대와 방임 등의 증가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면서 조손가정의 수가 늘어났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거의 높은 출생률로 현재까지도 노인들은 자녀 및 손자녀 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적인 사회 보장제도와 일자리의 한계로 인해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 형태는 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 간 상호 돌봄과 지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노인들은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인가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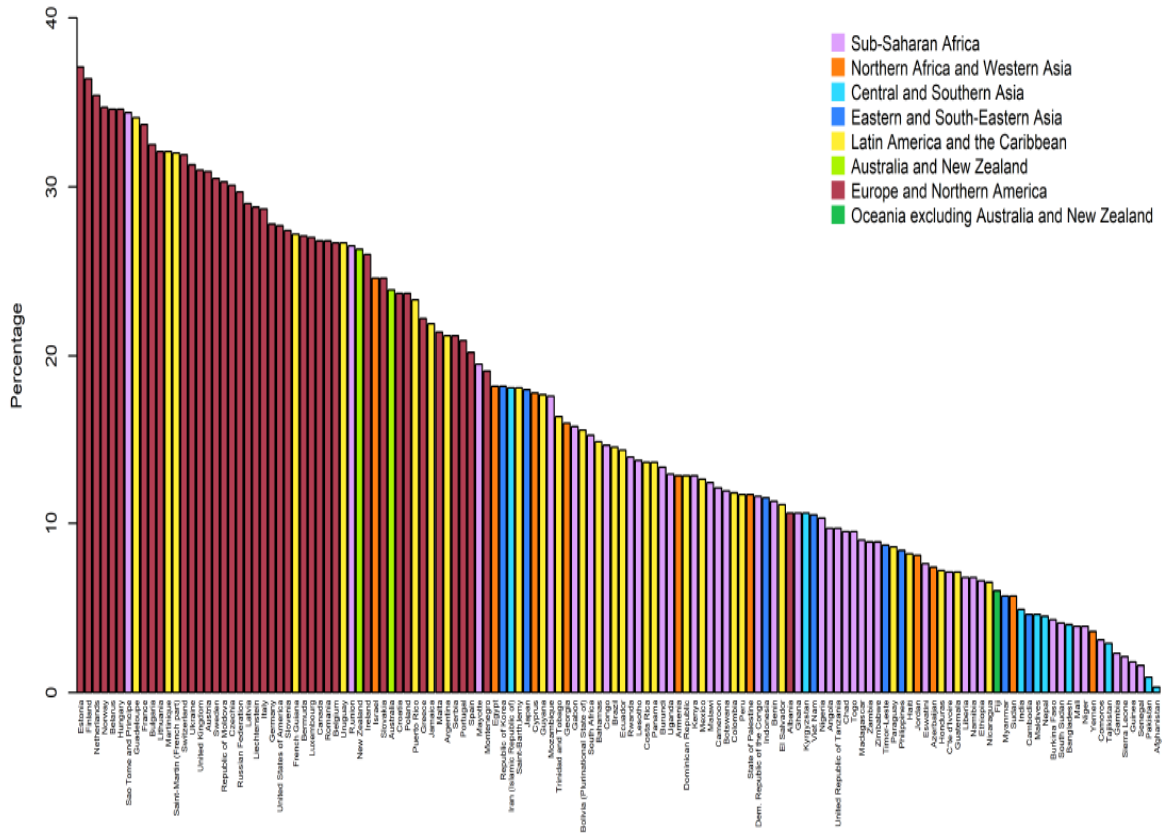
선진국의 경우, 아래 그래프와 같이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충분한 연금, 개인 자산과 공적 의료서비스 접근이 보장되어 있는 노인들은 혼자 살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되는 한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족의 부재나 다른 인적 지원망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나 형제, 친족 또는 친구와 가족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1인가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개발도

상국에서 독립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해 자녀 또는 친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Figure 1.

Percentage of persons aged 65 year or over who live alone, by country or area of residence,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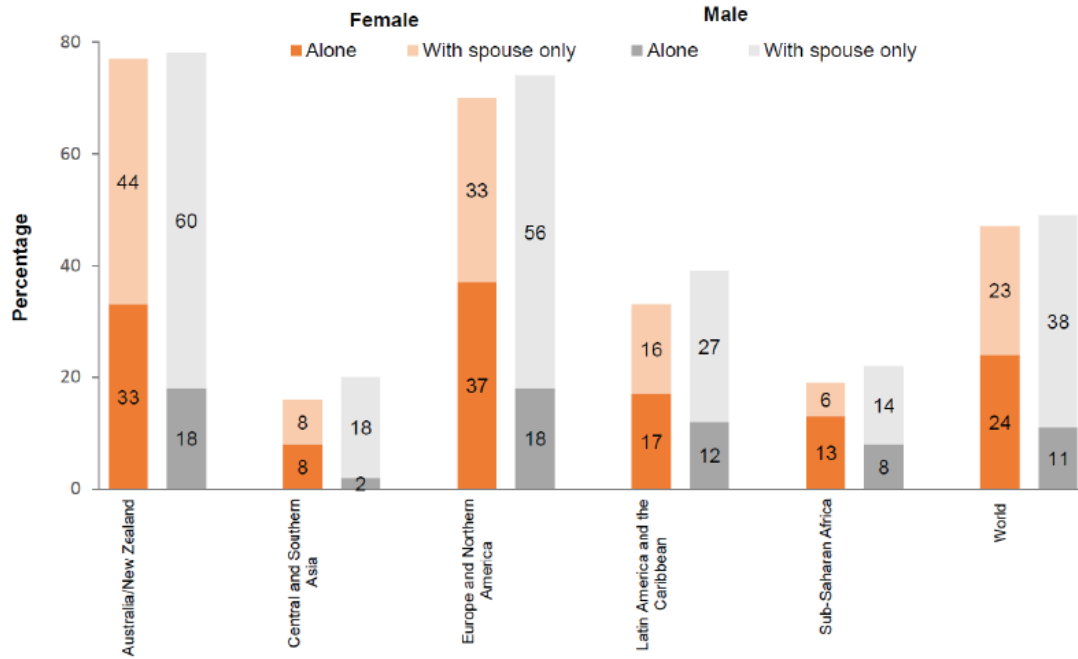


Sourc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a). Database on the Household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2019.

1인가구 노인이 많은 이유는 성별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비율은 남성노인보다 높으며, 주로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더 길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 노인이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한다. 2006년~201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남성 노인에 비해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비율은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노인 중 1인가구 여성노인 24%, 1인가구 남성노인 11%). 또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혼자 사는 남성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웰빙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경우, 사별한 배우자의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Percentages of men and women aged 65 years or over who live alone or with spouse only, by region, 2006-201



Sourc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a). *Database on the Household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2019*.

Notes: Regional aggregates were estimated for those regions with data available.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